

## 캠퍼스 창업생태계와 지역문화: 서울대와 카이스트 비교를 중심으로

천유영\* · 구양미\*\*

### Campus Entrepreneurial Ecosystems and Regional Culture: A Comparison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KAIST in Korea

Youyoung Chun\* · Yangmi Koo\*\*

**요약:** 본 연구는 한국의 창업생태계 발달 과정에서 기업가정신이 지역별로 어떻게 차이를 보이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탐구한다. 19인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인터뷰를 진행하여 서울대와 카이스트라는 캠퍼스 창업생태계를 연구대상으로 각 생태계의 형성과정과 구성요소를 비교했다. 첫째, 두 생태계는 1996년을 전후로 창업생태계를 형성해 현재는 다양한 지원조직과 행위자들을 보유한 '제2번처분'을 경험하고 있다. 둘째, 두 생태계는 물리적, 사회적, 문화적 속성에서 차이점을 보였다. 특히 네트워크 구조에서 서울대 생태계는 뚜렷한 앵커기관이 존재했으나 카이스트 생태계는 분산되어 있었다. 셋째, 두 생태계의 네트워킹 문화가 차이를 보임은 고유한 지역문화로 인해, 개인이 인식하는 지역의 기업가적 기회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었다. 즉, 창업생태계의 유지 및 성장 과정은 본질적으로 문화적이며, 지역마다 차이를 보인다.

**주요어:** 기업가정신, 지역문화, 기업가적 생태계, 캠퍼스 창업생태계

**Abstract:** This article examines how and why entrepreneurship differs by region concerning the history of Korea's entrepreneurial ecosystems (EEs). Through a qualitative analysis of 19 interviews, this article compares the history and component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KAIST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Es. First, these ecosystems emerged around 1996 and are currently experiencing the second startup boom, with various supporting organizations and actors involved. Second, these ecosystems revealed differences concerning material, social and cultural attributes. Third, differences in the networking of the two ecosystems are due to different regional cultures, which allow individuals to interpret entrepreneurial opportunities. In other words, the maintenance and development of EEs are cultural in essence and display regional variation.

**Key Words :** entrepreneurship, regional culture, entrepreneurial ecosystems, campus ecosystems

\*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석사과정 (M.A Student, Department of Geography, Seoul National University, youyoung97@snu.ac.kr)

\*\*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국토문제연구소 겸무연구원, 서울대학교 노화·고령사회연구소 겸무연구원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Seoul National University; Adjunct Researcher, The Institute for Korean Regional Studies, SNU; Adjunct Researcher, SNU Institute on Aging, yangmi@snu.ac.kr)

## 1. 들어가며: 한국의 창업생태계 역사

50여 년에 걸쳐 자연발생적으로 성장한 미국의 창업생태계와는 달리, 한국의 창업생태계는 1995년 벤처기업협회의 설립 이후 압축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2020년에는 설립된 법인기업수가 12만 3천 개에 달하며 ‘제1벤처붐’이 일었던 2000년보다 100% 성장하였다(중소벤처기업부, 2021).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종합하고 추가적인 사건을 부연하여, 한국의 창업생태계 발달 역사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sup>1)</sup>(그림 1 참조). 우선, 창업과 관련된 주요 지표가 측정되기 전의 시기인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는 창업의 태동기로 보았다<sup>2)</sup>. 이후 1995년 12월 벤처기업협회가 설립되었고, 1996년에는 이미 어느 정도 성장한 선도벤처를 육성하기 위한 코스닥이 설립되었으며, 1997년에는 초기의 창업벤처가 압축성장할 수 있게 돕는 벤처기업육성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이에 제1벤처붐이 불었던 2000년대 초반까지를 ‘제1기’로 칭할 수 있다. 그러나 21세기를 맞이하며 상황이 전환되었다. 2000년 3월 미국발

의 닷컴버블 붕괴는 코스닥의 붕괴를 가져왔고, 정부는 스톡옵션제 규제 강화, 벤처확인제도 보수화 등의 정책을 통해 성장이 아닌 안정위주로 노선을 변경하게 된다. 이민화 외(2015)은 2002년부터 대략 10년간 이어진 이 시기를 ‘제2기’ 혹은 ‘벤처빙하기’라고 보았다. 그러나 정책적 관점이 아니라 위험 속에서도 기회를 발견하는 창업가의 입장에서는 창업 지원정책의 변화보다 신산업의 등장과 몰락이 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스마트폰이 출현하며 모바일 혁명이 시작된 2008년을 ‘벤처빙하기’의 끝이자 ‘제3기’의 시작으로 설정했다.

한편, 2013년부터 정부, 대학, 민간이 활발하게 활동하며 한국의 창업생태계를 다시 만들어어나가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도 있다. 먼저, 2012년 5월에 비영리재단인 ‘은행권청년창업재단’이 시중 은행 19곳에 의해 설립되며, 국내 최초의 창업생태계 공간인 디캠프가 2013년 마포에 개관했다. 둘째로, 이스라엘의 창업투자 방식을 벤치마킹한 중소기업청의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즉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 프로그램이 있다. 이에 따라 2015년에는 서울 강남구 역삼로에 ‘팁스타운’이, 2021년에는 지방 최초로 충남대 내에 ‘대전 팁스타운’이 개관했다. 셋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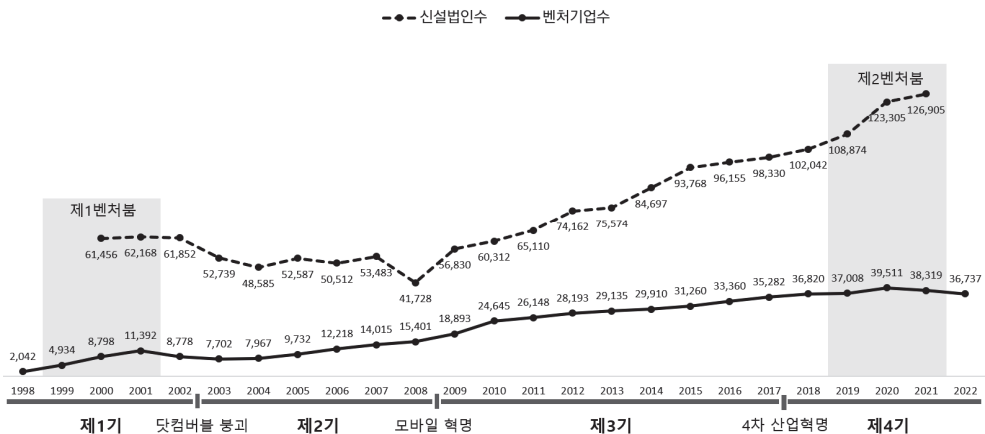


그림 1. 한국 창업생태계 주요 지표 변화 및 시기 구분

주) 이민화 외(2015), 이우진 외(2019), 중소벤처기업부(2021), KOSIS 창업기업동향 및 신설법인동향 통계자료 등 참조하고 연구자의 분석을 추가해 시기를 구분하고 재구성함

로, 대학과 서울시가 협력하는 캠퍼스타운 사업이 2017년에 시작되어 ‘캠퍼스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창업생태계가 주목받고 있는 현 상황을 국내 매체에서는 ‘제2벤처붐’이라고 부른다. 본고는 특히 2016년 ‘알파고 쇼크’가 발생하고 2017년 4차 산업혁명 개념이 대두됨에 따라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기반의 스타트업이 다량 출현한 것을 인지하며 2017년을 변곡점으로 설정했다. 그러나 ‘제2벤처붐’ 혹은 한국 창업생태계의 ‘제4기’가 얼마나 지속될지, 20년 전 ‘제1벤처붐’ 때처럼 현 상황이 스타트업의 ‘버블’은 아닌지는 앞으로 더 고려할 문제이다. 정리하자면, 한국의 창업생태계는 성장-쇠퇴-회복-재성장을 거듭하며 현 모습을 지니게 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국의 창업생태계 발달 과정에서 기업가정신이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는지, 만약 그렇다면 왜 그러한지를 밝히고자 한다. 여기에서의 지역별 차이는 기업가정신의 이질성(heterogeneity)이 비교적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하였고, 이를 ‘캠퍼스 생태계’로 상정하였다. 이에 다음의 세 가지 연구질문을 제시하였다. 첫째, ‘캠퍼스 생태계’는 어떤 과정을 거쳐 형성되고 발달하는가? 둘째, ‘캠퍼스 생태계’ 내의 문화적, 사회적, 물리적 속성들은 서로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가? 셋째, ‘캠퍼스 생태계’에서 네트워크 문화는 지역의 문화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이를 위해 서울대와 카이스트(KAIST: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를 사례로 캠퍼스 창업생태계의 구성요소 및 형성과정을 비교하고자 한다.

## 2. 이론적 배경

### 1) 창업생태계에 관한 진화적 접근

창업생태계(Entrepreneurial Ecosystems, 기업

가적 생태계) 관련 연구들은 구성요소들의 상대적인 중요성이 시간의 진화에 따라 어떻게 변해왔는지 평가하지 못하고, 이 변화에 기여하는 지역적 문화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Alvedalen and Boschma, 2017; Cohen, 2006; Saxenian, 1994).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창업생태계의 진화적 역동(evolutionary dynamics)에 관한 연구가 최근 들어 활성화되었다. Mack and Mayer(2016)는 탄생(birth) - 성장(growth) - 유지/지속(sustainment) - 쇠퇴(decline)의 네 단계로 구성된 진화적 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Cantner *et al.*(2021)은 이를 기반으로 창업생태계의 ‘재탄생(re-emergence)’라는 다섯 번째 단계를 제시했다. Brown and Mason(2014)은 창업생태계의 기본적인 유형을 초기(Embryonic) 생태계와 스케일업(Scale-up) 생태계의 두 가지로 나누었다. 후자일수록 생태계의 주요 기업가적 구성요소들을 위해 긍정적인 외부효과와 기회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음을 지적했다.

본 연구는 Mack and Mayer(2016)의 모델을 기반으로 서울대 및 카이스트 창업생태계가 현재 어느 단계에 도달했는지 진단하는 한편, 창업생태계 발달 과정에서 동일한 구성요소가 지역에 따라 다르게 작동하는 것에도 주목했다. 또한 한국 특유의 창업생태계 발달 역사에 의거해, 사회 경제적 차원에서 창업이 호황일 때와 불황일 때 어떤 행위자들이 생태계 내에서 핵심이 되었는지를 확인했다.

### 2) 창업생태계의 문화적·사회적·물리적 속성

창업생태계는 상호의존적인 행위자들로 구성된 공동체에서의 창업을 강조하며, 창업을 허용하고 제약하는 사회적 맥락의 역할에 집중하는 개념이다. 이는 본질적으로 지리적 관점으로, 지역 내에서 역사적으로 형성되는 문화, 제도, 네트워크에 중점을 둔다(Stam and Spigel, 2017).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하여 창업생태계의 속성

및 그 성공 요인을 밝힌 여러 연구가 있다 (Feld, 2012; Isenberg, 2010, World Economic Forum, 2013; Spigel, 2017b). 특히 Spigel(2017b)은 창업생태계를 ‘지역 내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요소들의 조합’으로 보고 이러한 요소들을 문화적(cultural), 사회적(social), 물리적(material) 속성이라는 세 카테고리 구분하였다. 문화적 속성에는 지지적인 문화, 기업가정신의 역사가 있고, 사회적 속성에는 네트워크, 멘토와 롤모델, 인재, 투자 자본이 있고, 물리적 속성에는 정책, 대학, 인프라, 시장, 지원 서비스가 있다. 문화적 속성은 사회적 속성을, 사회적 속성은 물리적 속성을 지원해주며, 반대로 물리적 속성은 사회적 속성을, 사회적 속성은 문화적 속성을 더욱 견고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본 연구는 Spigel(2017b)의 모델을 토대로 서울대와 카이스트 창업생태계의 구성요소들을 밝혀내고 그들 간의 상호관계를 확인했다.

### 3) 기업가정신과 지역문화

기업가정신에 관한 연구는 크게 경영학과 지리학 및 공간경제 분야에서 다루었다. 경영학에서는 ‘신생 기업의 탄생’이라는 상황을 충족하는 다양한 연구를 모두 기업가정신이라는 주제 하에 연구해왔다. 오랫동안 개념적 틀이 부재했으며 기업가정신이라는 특수한 실증적 현상을 설명하거나 예측하려 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존재했다(Shane and Venkataraman, 2000). 지리학 및 공간경제 분야에서는 기업가정신의 지리(geography of entrepreneurship) 맥락에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구양미, 2022). Mack and Qian (2016)에 따르면 기업가정신의 지리와 관련된 연구에는 크게 두 갈래가 있다. 첫째, 기업가정신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으며, 둘째, 지리적 요소가 어떻게 기업가정신의 지역적 차이를 가져오는지 연구했다.

특히 지리학 및 공간경제 분야에서의 두 번째 연구

경향은 지역문화를 주요 변수로 본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관련이 깊다. 지역문화가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는 많은 연구가 있었으나 크게는 두 조류가 있다. 첫째, 문화가 국가 및 지역적 수준에서의 기업가정신 수치에 영향을 끼침을 밝히는 지 확인하는 것이다. 둘째, 문화가 기업가의 개별 특성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개인의 기업가적 행동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연구이다(Hayton and Cacciotti, 2013). 대표적으로 Aoyama(2009)는 일본의 두 기업가적 지역인 Hamamatsu와 Kyoto의 역사적 유산이 각각의 비즈니스 관행에 영향을 주어 결국 특유의 기업가정신을 형성하였음을 서술한 바 있다. 이는 두 번째 연구 조류에 해당되며, 지역은 ‘기업가적 합리성’을 형성하는 단위가 될 수 있음을 보인 것이다. 그 외에도 계량분석을 통해 두 요인 사이의 상관관계를 밝힌 연구가 다수 있었다(Qian *et al.*, 2013; Stuetzer *et al.*, 2014; Kibler *et al.*, 2014).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이들 연구는 ‘지역적 특성/문화’를 특화 산업, 삶의 질, 대학, 사회적 다양성, 경제적 환경, 기업가적 문화, 지식 창출 등으로, ‘기업가정신’은 기업가적 행동, 창업의도, 스타트업 활동 개입 정도 등으로 조작적 정의를 내렸다.

이처럼 경제지리학은 경제적 과정에서 문화의 역할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해왔다. 특히 1990년대에 문화적 전환(cultural turn)을 맞이하며 이러한 연구에 대한 관심은 증대되었으나, 문화가 기업을 창출해내는 데에 기여하는 실제 역할에 관한 증거가 빈약하며 방법론적 기반이 약하다는 한계가 있어왔다(Spigel, 2017a). Spigel (2017a)은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며, 부르디외(Bourdieu)의 ‘실천’ 개념을 도입해 기업가정신의 지역적 차이를 설명하고자 했다. 기업가는 ‘로컬 필드(local field)’라는 렌즈를 통해 ‘논로컬 필드(nonlocal field)’의 문화를 해석한다. 따라서 동일한 ‘멘토십’ 문화라도 지역의 ‘로컬 필드’ 문화에 따라 상이하게 수용되고, 이것이 지역적 불균등성을 초래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Spigel(2017a)의 방식이 질적연구에 유용한 분석의 틀을 제공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를 차용해 서울대와 카이스트 창업생태계의 네트워킹 문화 요소를 비교하였다.

### 3. 연구대상과 연구방법

#### 1) 한국의 창업생태계와 대학 캠퍼스 생태계

1장에서 논한 바처럼 한국은 현재 ‘제2벤처붐’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 제2벤처붐 시기에 역동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한국의 창업생태계에는 ‘캠퍼스 생태계’와 ‘권역별·산업별 생태계’의 두 종류가 있다. 이는 기업가적 활동의 분석단위를 대학으로 볼 것인지 지역으로 볼 것인지의 논의와 서울시 세대별 창업 분포 요인과도 관련이 있다(구양미, 2022; 홍성표 외, 2021). 이전에는 대학과 산업단지가 지리적,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었으나 혁신적인 창업이 강조됨에 따라 둘 사이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생겨났다(염대봉, 2021). 이 과정에서 대학을 기반으로 창업생태계가 형성될 경우 ‘캠퍼스 생태계’, 특정 테마 혹은 산업을 기반으로 형성될 경우 ‘권역별·산업별 생태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두 생태계가 연계되어 상생하는 것이다.

첫째로, ‘캠퍼스 생태계’란 대학 기반의 창업생태계이다. 대표적인 예로는 ‘서울대 창업생태계’, ‘한양대 창업생태계’ 등이 있다. 이외에도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 네이버의 ‘D2 스타트업 팩토리’나 ‘청년창업사관학교’와 같이 교육기관의 외관을 지닌 창업가 공간이 있다. 그러나 이들은 정식 대학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 영향력이 지역 단위로 광범하게 파급되는 데 무리가 있다. 한편, ‘캠퍼스 생태계’는 대학의 창업지원단에서 제공하는 창업보육센터, 대학가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창업동아리와 캠퍼스타운, 학생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데 특화된 벤처캐피탈(이하 VC)과 창업기획자(이하 AC) 등으로 구성된다. 주로 초기의 기업가정신 교육을 담당하여 스타트업이 태동하는 곳으로 기능한다. 즉 ‘캠퍼스 생태계’는 창업에 대한 관심은 있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학생들에게 적절한 보상, 기회, 도움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역할이 활성화되면 창업에 대한 관심이 없는 학생이라도 단지 그 생태계 안에 존재함으로써 자연스레 관심을 갖게 하는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러한 ‘캠퍼스 생태계’ 내에서의 주요 주체는 대학이다. Malecki(2018)는 ‘캠퍼스 생태계’ 내에서 대학이 경계에 걸쳐 있는 제도적인 ‘노드(node)’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고도의 숙련된 인력을 제공하고, 교육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넘어 능동적으로 지역의 전략을 형성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학은 중요하다. 또한, 한국은 수도권으로의 청년 집중으로 인해, 혁신적인 인재가 집중된 대학 캠퍼스를 중심으로 창업생태계를 조성해가는 것이 지방에서 더욱 중요하다(정미애, 2019).

둘째로, ‘권역별·산업별 생태계’란 ‘캠퍼스 생태계’에서 프로그램을 이수한 스타트업들이 시드 투자를 받고 사업을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입지하는 생태계로, ‘창업 단지’(곽혜진 외, 2018) 혹은 ‘창업혁신거점(허브)’(중소기업연구원, 2020)로도 불린다. ‘캠퍼스 생태계’는 대학이 중심이지만 ‘권역별·산업별 생태계’는 특정 권역 혹은 산업의 스타트업 육성센터가 중심이 된다. 이곳에서 기업은 비용 절감, 인력 유치, 네트워킹 등의 이점을 누릴 수 있다. ‘권역별 생태계’에 해당하는 마포의 ‘서울창업허브’나 역삼동의 ‘스타트 트랙’ 등은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들이 모여있음에 이점을 누린다. ‘산업별 생태계’에 해당하는 양재의 ‘AI양재허브’, 성수의 ‘소셜벤처 허브센터’, 여의도의 ‘서울핀테크랩’, 홍릉의 ‘서울바이오허브’는 각각 인공지능, 소셜벤처, 핀테크, 바이오 업종의 스타트업이 밀집된 센터로, 이를 거점으로 스타트업이 모여 생태계가 형성된다. 이렇게 형성된 생태계 속에

서 스타트업들은 고정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공공 및 민간분야(서울시, 중소벤처기업부, 네이버, 아산나눔재단 등)에서 제공하는 임대료가 월등히 저렴한 오피스 시설에 주로 입주한다. 그 외에도, 우선시하는 입지요인이 비용이 아닌 경우 ‘위워크(Wework)’나 ‘패스트파이브(Fastfive)’와 같은 공유오피스도 하나의 선택지가 된다. 또한, 로봇 등을 실험함으로써 소음이 발생해 독립적인 공간이 필요한 경우 공유오피스가 아닌 개별 사무실을 선택하기도 한다. 이처럼 ‘권역별·산업별 생태계’는 오피스 공간을 제공하여 스타트업들을 유인함으로써 형성된다.

한편, ‘캠퍼스 생태계’와 ‘권역별·산업별 생태계’가 명확히 구분되는 것은 아님을 인식할 필요도 있다. 캠퍼스처럼 인재양성을 목표로 기초소양교육, 실무교육 등을 제공하는 ‘권역별·산업별 생태계’도 존재한다. 대표적인 예로, ‘AI양재허브’는 2020년에 교육 전문동을 개관하여 인공지능 산업의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즉 스타트업의 태동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하기 시작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캠퍼스 생태계’ 역시 지역의 산업 기반에 영향을 받아 특정 업종이 집적하는 허브가 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카이스트의 캠퍼스 생태계는 대덕연구개발특구라는 권역별·산업별 생태계와 상호작용하며 발전해왔다. 인적자원과 기술자원이 두 생태계를 넘나들며 기술창업 중심의 생태계를 형성한 것이다.

##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대 창업생태계’와 ‘카이스트 창업생태계’의 구성요소 및 형성과정을 비교하고자 한다. 두 창업생태계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창업생태계의 투자자들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좋은 학벌을 지닌 창업가에게 투자해온 문화가 있다. 특히 증시 조정으로 인해 중, 후기 스타트업보다 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집중될 때, 전통적인 벤처 강자인 서울대와 카이스트 출신 대표

이사들에게 투자금을 소진하는 경향성이 증대된다(조선일보, 2022.05.24.). 둘째, 여타 우수한 대학들과 비교했을 때, 서울대와 카이스트는 1995년에 본격적으로 창업생태계가 조성되기 이전부터 성공적인 벤처 기업가들을 배출해온 역사를 지닌다. 이러한 성공신화와 역사성으로 인해 현재에도 비교적 성숙한 ‘캠퍼스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서울대와 카이스트는 모두 1996년경 학생 주도적 창업동아리를 창립한 바 있다. 이는 자발적 네트워크 조직에서 어떻게 기업가정신의 전수가 일어났는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된다.

창업생태계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크게는 한 도시가, 작게는 대학이 하나의 창업생태계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캠퍼스 생태계’를 기본적으로 캠퍼스 공간, 대학 구성원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캠퍼스 부근에 설립된 입주센터, 생태계 내의 기업에 투자하는 VC와 그 주변에 위치한 스타트업들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서울대 창업생태계는 관악 캠퍼스, 신림창업밸리(대학동), 낙성벤처밸리(낙성대동), 창업동아리 SNSUSV, 서울대입구역 부근에 입지한 스타트업과 그들을 보조하는 VC인 스프링캠프로 구성된다. 관악 캠퍼스 내에는 창업지원단, 단과대 차원에서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투자를 담당하는 서울대기술지주 등이 있다. 신림창업밸리에는 서울대 캠퍼스타운의 입주시설, KB 이노베이션 허브, 우리금융 디노랩 제2센터 등이 있다. 이와 유사하게 낙성벤처밸리에도 캠퍼스타운 입주시설이 있으며, 낙성벤처창업센터, 서울창업센터 관악지점 등이 있다. 또한 관악S밸리의 범위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서울대입구역 2,3번 출구를 따라서 다수의 스타트업과 VC가 입지하고 있다. 가령, 스프링캠프가 투자한 200여 개의 스타트업 중 20개가 현재 서울대입구역 부근에 위치해있다. 이는 관악구, 서울대, 서울시, 캠퍼스타운 등에 의해 인위적으로 조성되지 않은, 자생적으로 형성된 창업생태계이다.

카이스트 창업생태계는 대전 캠퍼스, 충남대와 카

이스트 사이의 대전 스타트업파크(유성구), 캠퍼스 주변에 입지한 스타트업과 그들을 보조하는 VC인 블루포인트파트너스로 구성된다. 카이스트 대전 캠퍼스 내에는 창업원, 스타트업 팀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숙사인 스타트업 빌리지, 단과대별 랩실, 카이스트청년창업투자지주 등이 있다. 대전 스타트업파크는 카이스트, 충남대와 대덕특구(정부출연연구원)를 연계하기 위한 공간으로, 스타트업 팀들에게 입주공간을 제공하는 건물 D1, D2, D3과 대전 팁스타운, 신한금융그룹 S-브리지가 있다. 한편, 카이스트의 창업생태계는 서울의 일부 지역에도 비지(exclave)와 같은 공간을 지닌다. 가령 카이스트의 창업원은 판교 센터를 설립하여 카이스트-판교테크노밸리 기업간 연계 및 네트워크 구축, 교육, 산학연계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경영대학이 있는 카이스트 홍릉 캠퍼스에서는 SK그룹과 KAIST 경영대학이 협력하여 신설한 소셜벤처 MBA(Social Entrepreneurship MBA, SEMBA) 과정이 있다.

### 3) 연구방법

우선 캠퍼스 창업생태계 발달 역사를 재구성하기 위해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에서 과거 신문 기사를 검색하였다. 문헌조사를 통해 어느 시기에 어떤 생태계 구성요소가 출현했고, 주로 활약했던 행위자는 누구였는지 알아보았다. 이를 통해 인터뷰 대상을 추려 내어 2022년 3월~7월까지 서울과 대전에서 반구조화된 인터뷰를 진행했다.

본 연구에서 인터뷰 대상이 된 사람들의 대략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주요 인터뷰 대상자는 1996년에 서울대와 카이스트에서 각각 창업동아리를 만든 창립자 두 명이다. 이들은 50대의 연쇄창업가들로 현재에도 회사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었다. 다음으로는 각각 학교의 현 창업동아리 회장을 인터뷰하고자 했다. 본 논문에서 추후에 상술하겠으나, 카이스트 최초의 창업동아리는 2000년대 초에 사라지고 이후 산발적으

표 1. 인터뷰 대상

분류	내용	인터뷰 인원
서울대학교 창업생태계	창업동아리 창립자	1명
	현 창업동아리 회장	1명
	서울대 출신 창업가	2명
	스타트업 종사자	4명
	VC 종사자	5명
카이스트 창업생태계	창업동아리 창립자	1명
	카이스트 출신 창업가	2명
	스타트업 종사자	2명
	VC 종사자	1명

로 등장했다. 따라서 창업동아리에 국한시키지 않고 카이스트 출신 창업가를 5명 만났다. 반면 서울대는 창업동아리를 둘러싼 네트워크가 존재하며 현재에는 회장단의 네트워크로 인해 동아리가 ‘스프링캠프’라는 VC와 연계되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처음에는 창업동아리 회장 인터뷰로 시작했으나 스노우볼 표집과 네트워크 데이(‘스프링데이’) 참관을 통해 ‘스프링캠프’ 관계자 5명과, 서울대 창업생태계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학생 3명을 만날 수 있었다. 정리하자면, 카이스트 생태계 관련자 6명과 서울대 생태계 관련자 13명을 인터뷰했다(표 1 참조). 인터뷰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속성은 각 인용문의 말미에서 밝혔다.

## 4. 서울대와 카이스트 창업생태계 발달 역사

### 1) 서울대 창업생태계의 발달 역사

#### (1) 탄생 단계 (1995년~2001년)

서울대 창업생태계는 한국의 벤처기업협회가 설립된 1995년 이후로 본격적으로 태동하기 시작했다. 이는 ‘서울대’, ‘창업’을 키워드로 네이버 라이브러리에서 검색했을 때 1997년을 전후로 하여 기사 수가 급증하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무렵 서울대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활약한 주체는 1996년에 설립된 한국의 최장수 창업동아리인 SNUSV(Seoul National University Student Venture Network, 당시 명칭 ‘벤처창업동아리’)이다. 당시 서울에는 이미 10개 정도의 창업학교가 있었으나, 경제 불황과 각종 사회적 불안으로 인해 명맥을 유지하는 곳은 많이 없는 실정이었다(동아일보, 1991.12.19.). 그러나 본 동아리가 설립되며 창업과 관련된 활동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기업가정신이 전수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었으며, 서울대는 생태계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SNUSV의 창립자는 동아리의 설립 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는) 학과 공부도 재미있고, 어느 정도 좋아했어요. 그런데 메타인지를 엄청 해봤는데 (제가) 과학고 애들보다 잘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B+에서 A-까지는 할 수 있겠다고 스스로 판단을 내렸어요. 또 생각했던 것은, 제가 (학과 내의 뛰어난 사람들보다)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하고 술을 좋아한다는 것이었죠. 그러다가 창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만약 지금 이 나이에 삼성에서 일하고 있다면 돈, 명예가 다 있겠지만 내 것이 아니니까 재미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인생을 왜 사는가? 생각하다보니 창업이 (인생의) 목적이 되었고 창업동아리를 만들었어요. 동아리가 목적이 아니고 창업이 목적이 다보니 오히려 동아리 생활을 잘하게 된 거예요.” (창업동아리 창립자, 2022년 5월 17일)

이렇게 설립된 SNUSV는 인식상의 불모지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창업’을 실현하는 정신을 현재까지 전수해왔다. 당시 서울대에서 창업에 관심을 갖는 것은 ‘빼따선을 타는 일’로 여겨졌다. 학생뿐만 아니라 교수들 사이에서도 ‘연구나 하지 사업까지 하려고 한다’는 시각이 존재했다(머니투데이, 2015.05.20.). SNUSV 창립자에 따르면, 동아리가 창립되었을 당시 많은 기자들이 관심을 갖고 찾아와 인터뷰

를 진행했다고 한다. 그러나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그런데 진짜 창업 하실건가요?”라고 질문을 할 정도로 당시 학생창업을 학생들의 치기 어린 시도로 보는 경향이 존재했다. 그럼에도 SNUSV는 창립자부터 시작해서 역대 회장들이 줄줄이 창업함으로써 기존의 인식을 바꾸는 데에 기여했다.

학생창업만이 아니라 교수창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했으나 공대 차원에서 기술의 사업화를 통해 이를 전환시킨 역사가 있다. 당시 대학교수는 창업 후 대표가 될 수 없었으며 대학 내에는 사업장 개설을 금지하는 규제가 존재했다(헬로디디, 2016.08.11.). 그러나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의 한 교수는 정부 규제개혁위원회에 건의하여 ‘대학 내 공장등록’, ‘창업자본금 5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하’를 관철시켰고(매일경제, 1998.09.08.) 결국 1997년에는 공대 내 창업지원센터인 ‘신기술창업네트워크’가 설립되었다.

이처럼 서울대 창업생태계는 탄생 단계에서 학생 주도적 창업동아리와 공과대학을 중심으로 한 창업지원센터의 설립이 두드러졌다. SNUSV 역시 초기에는 공대의 전기공학부 학생들이 회원으로 모였다는 점에서 생태계가 전반적으로 공대에서 태동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SNUSV 창립자는 당시 동아리와 공대 교수 및 창업지원센터와의 관계에 대해 아래와 같이 말했다.

“기계과에서는 창업을 엄청 반겼어요. 신기술창업보육(TBI) 프로그램 역시 우리가 영향을 준 거예요. 반드시 동아리 때문에 형성된 것은 아니었지만, 교수님들도 ‘아 이런 게 있구나’ 하면서 영향을 받았죠. 동아리 멤버들 중 그 인큐베이션에서 첫 회사를 꾸린 팀도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공대의 실험교재를 만들어 준 일도 있어요. 애들이 기계를 사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기계를 제공받는 대신에 실험교재를 써 주기로 조교들과 ‘쇼부’를 본 적도 있어요.” (창업동아리 창립자, 2022년 5월 17일)



이를 통해 이른바 ‘야망있는 기업가정신(ambitious entrepreneurship)’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에게 영향을 받으며, 좋지 않은 사회적 인식 속에서도 기회를 발견하여 제도를 바꾸고 창업에 지지적인 환경을 조성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더 나아가, 1998년에는 관악구 일대에 모두 170여 개의 벤처기업이 입주하게 되었는데 이는 관악구도 벤처 열풍에 동참하여 서울대와 함께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시작한 것으로 해석된다(한국경제, 2000.03.31.).

## (2) 성장 단계 (2002년~현재)

2002년 무렵 IT버블 붕괴로 인해 벤처 붐이 사그라들며 벤처 빙하기가 시작되었다. 한 응답자는 벤처 빙하기에 대해 “정말 추웠죠. 그 기간에 대부분이 포기했죠”라고 말하였다. 특히 2002~2004년 사이에는 학내의 벤처 열풍도 잠잠해졌다(서울대저널, 2008).

그러나 불황에도 불구하고 학생창업을 지원해주는 기관은 오히려 이 시기에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령, 유전공학특화 창업보육센터(1999년), 의생명과학 창업보육센터(2000년), 농생명과학 창업지원센터(2001년), 치과대의 덴탈메디케어 창업보육센터(2005년)가 차례로 문을 열었다(매거진한경, 2017.06.20.). 이는 한 공대 교수가 창업한 ‘SNU프리지전’이 약 80억원의 공대 연구기금을 조성한 사례와 같이, 실험실 벤처가 대학재정 확충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이었다(대학신문, 2005.10.08.).

한편, SNUSV는 이 시기에 지원자 수가 감소하고 인기가 하락했으나 활동을 계속했고, 회장의 역량에 따라 새로운 프로그램이 시도되었다. 2000년에는 ‘네트워크’를 강조하며 동아리 명칭을 ‘학생벤처네트워크(SNUSV)’로 변경했으며, 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해 당해 9월에는 제1회 벤처창업 경진대회를 개최했다(머니투데이, 2015.05.20.). 벤처창업 경진대회는 이후 매해 9월 서울대생을 대상으로 개최되다 2004년에는 서울시의 지원을 받으며 타 대학으로 확장되었

으며, 2007년에는 타 대학 및 일반인도 대상으로 포함 시키기에 이르렀다. 또한, 2004년부터는 회장단 및 팀원이 MIT-GSW(MIT-Global Startup Network)에 참가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국제무대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함으로써 국내에서의 위기를 모면하고자 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서울대 창업생태계는 한국 벤처가 빙하기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창업보육센터를 지속적으로 설립하고, 동아리 차원에서도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교육을 통해 창업정신을 전수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다. 창업정신이 대학 차원에서도, 학생 차원에서도 이어졌기에 제2벤처붐이 그 기반 위에서 꽃필 수 있었던 것이다.

벤처 빙하기가 끝나고 제3기(그림 1 참조)가 시작될 무렵인 2008년에는 더욱 다양한 창업생태계 구성 요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우선 서울대 기술지주회사가 설립되어 대학 내 원천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산업화로 이어질 수 있게 되었다. 기술지주회사는 2013년에 ‘에스-이노베이션센터’를 세워 창업보육기능까지 맡게 되었고, 경영대는 2014년 ‘벤처경영기업가센터’를 세우고 ‘벤처경영학 연합전공’을 신설해 학부생도 창업을 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현재에는 특히 창업지원단을 중심으로 창업 교육, 창업 경진대회 개최, 아이템 사업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2015년 12월 서울대학교 생태계를 대표하는 VC인 스프링캠프가 설립되고, 2020년부터 서울대 캠퍼스타운에서 입주기업을 받기 시작하며 캠퍼스 외부로도 생태계가 확장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다양한 경로로 창업생태계에 진입할 수 있게 되었다. 한 응답자는 서울대 창업생태계에서 어떻게 창업을 시작하게 되었느냐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했다.

“처음에는 뭘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일단 벤처경영학과를 복수전공 했죠. 벤처경영학과는 창업에 관심이 있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를 때, 아직 네트워크가 전혀 존재하지 않을 때 초기 단계

에서 들어가기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정말 아 이템을 생각해내고, 창업지원단에서 공간을 예약 해서 썼는데 공사한다고 해서 나오게 되었어요. 갈 곳이 없어졌는데, 벤처경영학과에서 알게 된 한 분이 스프링캠프에 입주해 있었고 그 공간을 소개해줬어요. 그냥 한번 사무실에 놀러가 봤는데 좋아보여서 여기 어떻게 입주하냐고 물어보았고, 바로 심사역님과 미팅을 잡게 되었어요. 미팅을 한 다음 입주하게 됐죠. 스프링캠프는 초기 투자를 받으려는 스타트업이 고려하는, 열 손가락 안에 드는 VC예요.” (서울대 출신 스타트업 종사자, 2022년 3월 20일)

## 2) 카이스트 창업생태계의 발달 역사

### (1) 탄생 단계 (1992년~2001년)

카이스트 창업생태계는 기술창업의 중요성에 대한 정부의 인식으로 인해 형성되었다. 1960년대부터 과학기술을 산업화의 초석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정책적 시도가 도입되어, 1971년에는 카이스트의 전신인 한국과학기술원 설립되었고, 70년대 후반부터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 1974년에는 대덕연구단지의 건설이 이루어졌다(김상태 외, 2013). 이에 따라 카이스트 내에서는 1994년 12월에 창업보육센터인 TIC/TBI가 설립되었고, 1997년에는 신기술창업지원단으로 확대 발족되었다. 또한, 기술력이 있어도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전지역 벤처기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기술경쟁력 평가센터’를 1999년에 카이스트 내에 설립하였다(연합뉴스, 1999.07.29.). 같은 해, 카이스트와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각기 운영 중인 창업보육센터 내 벤처기업을 공동으로 지원하기 위한 협약을 맺으며, 카이스트 신기술창업지원단을 종합센터로 지정하였다(연합뉴스, 1999.12.23.). 이처럼 카이스트 창업생태계는 초기부터 이미 풍부한 벤처기업들이 입주하고 있었으며 기술력을 보유한 대전의 창업생태계와 연계되어 탄탄한 기반을 다질 수 있었다.

한편, 학생 주도적인 움직임도 보이기 시작했다. 한국 최초의 창업동아리인 KB(KAIST Businessman)클럽이 1996년에 설립되어 전국의 창업동아리들에 영향을 주었다. 대표적인 예로, SNUSV 창립자는 대전에 자주 내려가 KB클럽 회장과 네트워킹을 하며 그 동아리의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했다고 답하였다. KB클럽의 창립자는 당시의 창업 분위기와 동아리의 설립 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취업을 하지 않고 창업을 하는 것에 대해 충격을 받던 시대였죠. 기업가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예상할 수 있듯이 정경유착 때문이었어요. (...) 당시 저는 암기만 하고 시험을 치는 대학공부에 흥미를 느끼지 못했고, 교수님들에게도 실망감을 느꼈어요. 공부가 제 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다가 실리콘밸리의 스토리를 듣고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만 해도 실리콘밸리 얘기가 널리 퍼져있지는 않았어요. 그 생태계가 일반 기업의 설립과는 달리 ‘엔젤’ 투자자와 VC가 있다는 점에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도 이들과처럼 벤처기업을 꾸려야겠다는 생각에 대자보를 붙이고 사람을 모았어요.” (창업동아리 창립자, 2022년 5월 24일)

창립자에 따르면 KB클럽은 약 20명의 멤버로 시작되었다. 대부분은 비교적 창업하기 수월한 전공인 전기 및 전자공학과 출신이었다. 그런데 SNUSV와 달리 KB클럽은 동아리를 사단법인으로 만들어 네트워크를 법률적으로 인정받고자 했다. 결국 산업자원부의 지휘감독을 받는 사단법인 KVC(한국대학생벤처창업연구회)가 되어 국가예산과 사무실을 지원받게 되었다. 특히 대학 재학생, 졸업생, 창업가 사이의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정보교류를 주선하고 사람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했다(조선일보, 1997.05.20.). 사단법인의 설립은 분명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일이었으나, 동아리의 운영에는 소홀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카

이스트 학생들은 다들 자기 일 하느라 너무 바빠서 클럽활동에는 관심이 없었다”고 클럽 창립자가 말했다. 그러던 중 KB클럽의 2대 회장이 벤처빙하기에 어려움을 겪다 갑작스럽게 별세하는 일이 발생했고, 후임을 구하려고 했으나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 3대 회장이 임명되지 못했다. 결국 동아리는 폐지되었다. 이렇게 창업동아리의 맥이 끊어진 카이스트에서는 싸이월드를 배출해 낸 창업동아리인 ‘E-Biz 클럽’과 카이스트 출신 벤처기업인의 모임인 KVN(KAIST Venture Network) 등이 만들어졌으나(황주성, 2004) 다음 창업세대를 배출해낼 수 있는 조직으로서의 창업동아리로 기능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 (2) 성장 단계 (2002년~현재)

벤처 빙하기에도 불구하고, 카이스트 창업생태계는 지속적으로 성장해갔다. 2012년에는 현재 카이스트 창업원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알려진 E\*5가 시작되었다. 한 응답자는 본 프로그램에 대해 “E\*5만큼 핵심적인 창업 프로그램은 없다고 생각해요. 유명한 VC의 심사역 분들이 멘토로 참여하시는데 그 멘토링 덕분에 시드투자도 받게 되고 네트워크도 쌓을 수 있어요”라고 답하였다. 또한, 2014년에는 카이스트 창업생태계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창업원이, 2016년에는 창업융합전문석사 과정과 학부의 기업가정신 부전공을 주관하는 K-school이 설립되었다. 참고로, 현재 카이스트에서 가장 잘 알려진 창업동아리는 창업원의 학생자치기구이기도 한 KE(KAIST Entrepreneurs)이다. 그러나 한 응답자에 따르면 코로나로 인해 2020년부터 활동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2013년에는 홍릉에 있는 카이스트 경영대학에서 SEMBA 과정이 설립되어 소셜벤처 창업가 양성에 힘쓰기 시작했다. 경영대학을 대표하는 창업동아리는 2015년에 설립된 K-Ventures로, VC, 창업자, 컨설턴트, 교수, 현업 전문가 등 200여 명의 동문으로 구성된 ‘KAIST One Club(KOC)’ 네트워킹 모임을 주최하고, 대학 창업지원센터와도 교육과 프로젝트를 기

확하고 있다. 이외에도, 카이스트 동문이 설립했으며, 카이스트에 적을 두고 창업할 때 초기투자를 받기 위해 고려하는 대표적인 VC 중 하나인 ‘블루포인트파트너스’가 2014년에 설립되고 2020년 말 카이스트 부근에 창업커뮤니티 자회사 ‘시작점’을 열어(헬로디디, 2021.06.10.),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턴, 네트워킹 등의 기회를 제공하며 창업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처럼 VC 혹은 AC가 지역에 뿌리내려 스타트업 인프라 강화에 투자하는 것은 비수도권 지역의 창업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데 결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머니투데이, 2021.06.28.).

## 5. 서울대와 카이스트 창업생태계 비교

### 1) 물리적·사회적·문화적 속성의 공통점

서울대와 카이스트 창업생태계를 비교하기 위해 먼저 물리적 속성, 사회적 속성, 문화적 속성으로 나누어 공통점을 살펴보았다.

물리적 속성 차원에서 두 생태계는 모두 충분한 창업 지원센터와 교육 프로그램을 지니고 있다. 서울대는 캠퍼스 내에서 총 8개의 창업지원센터를 두어 단과대별로 특색에 맞는 창업을 할 수 있게 한다. 카이스트는 개별 랩실과 창업원, K-School, E\*5 프로그램 등이 모두 입주하고 있는 ‘w8’동 건물을 중심으로 창업이 이루어진다. 이처럼 서울대와 카이스트 모두 적극적으로 창업 관련 기관들을 만들어가는 현상에 대해, 제2벤처붐이 시작되며 물리적 지원이 포화상태에 도달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두 응답자는 각각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나라는 액셀러레이팅이 워낙 많아요. 우리나라처럼 좋은 곳이 없죠. 이미 널렸어요. 그래서 더 만든다고 (생태계가)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one of them이 될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설은 경쟁력이 딱히 없고, 핵심은 시설보다 사람이죠.” (서울대 출신 스타트업 종사자, 2022년 4월 11일)

“최근 몇 년간 기술창업을 지나치게 믿는 경향이 있었어요. 스타트업들도 처음부터 어려운 기술을 풀려고 했고 그것을 내세워서 투자를 받았어요. 이렇게 기술조직에 투자하려니 VC 입장에서 돈이 너무 많이 나간거죠. 포화 상태에 도달했다고 봐요 (...) 저는 기술 자체보다 ‘마켓핏’[시장수요]을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카이스트 출신 스타트업 종사자, 2022년 7월 10일)

물리적 속성을 지원해주는 사회적 속성 차원에서, 두 생태계는 멘토와 롤모델, 인재, 투자 자본을 캠퍼스 내외에서 찾을 수 있었다. 서울대에서 창업을 꿈꾸는 학생들의 경우 벤처경영학과, SNUSV, 스포링캠프라는 사회적 조직에서 멘토, 롤모델, 인재, 투자자본을 주로 찾는다. 카이스트는 창업원 주관의 E\*5 프로그램에서 투자자본과 멘토를, 전문석사과정에서 인재와 동업자를 주로 찾으나, 카이스트 생태계 외부의 자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서울에서 인턴을 하기도 한다. 멘토에게 조언을 구하고 사람을 중시하는 문화는 스타트업에게 핵심적인 것이기에 표면적인 차이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또한 문화적 속성 차원에서, 학생창업을 부정적으로 보는 문화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문화로 바뀌어왔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이는 두 생태계의 지역적 차이에서 기인했다기보다 한국 창업생태계의 발전 역사와 관련이 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 2) 물리적·사회적·문화적 속성의 차이점

첫째, 서울대는 관악구, 더 나아가 서울시라는 역동적인 시장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비록 교통의 편리성 측면에서 강남구보다 덜하겠지만,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구하거나 비즈니스 미팅을 하거나 네트워킹을

형성하는 데에 카이스트보다 이점을 지닌다. 카이스트는 대덕연구단지 내에 위치하고 정책적으로도 기술 창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얻고 있으나, 상술한 부분에서는 서울보다 부족하다. 이는 카이스트가 판교에 창업원을 설립하고, 블루포인트파트너스가 서울 역삼동 ‘스타트 트랙’ 거리에 있는 오피스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추론할 수 있다. 또한 정책과 인프라 면에서 부족한 것이 없더라도 마케팅 및 자금 조달의 어려움으로 인해 서울로 사무실을 이전하는 현상은 과거부터 지속되어왔다(연합뉴스, 2000.09.17.). 카이스트 출신 스타트업의 서울 이전 현상은 인터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은 서울로 가야해요. 회사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의 외부 인식 문제도 있고, 보통 비즈니스 약속이 다 서울이라는 문제도 있어요. 인재채용, 디자이너 채용도 문제예요. 그런데 대전에 본사를 두고, 서울에 분점을 두는 경우도 많아요. 서울 밖에 본사를 뒀을 때 혜택이 많아요. 그리고 연구와 관련된 창업 쪽은 오히려 대전이 유리해요. 딥테크처럼.” (카이스트 출신 스타트업 종사자, 2022년 5월 24일)

둘째, 네트워크라는 사회적 속성에서 두 생태계는 큰 차이를 보인다. 서울대와 카이스트의 창업동아리는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졌지만 여러 원인으로 인해 KB클럽은 사라진 반면 SNUSV는 26년 지속되었다. 오래 지속되었다는 역사성으로 인해 SNUSV는 서울대 창업생태계에서 큰 의미를 지니게 되었고 앵커기관으로 그 위상을 굳혀갔다. 즉 SNUSV를 거치면 창업에 핵심적인 기관 및 사람과 연결되는 것이 용이해진 것이다(그림 2 참조). 특히나 동아리의 회장단 및 운영진이 딜메이커가 되어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연결해주는 역할을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SNUSV는 때때로 교내의 벤처경영학과나 창업지원단과 연계해 프로그램을 기획하기도 했으나 학생 주도적 창업동아리라는 본질을 잊지 않고서 해마다 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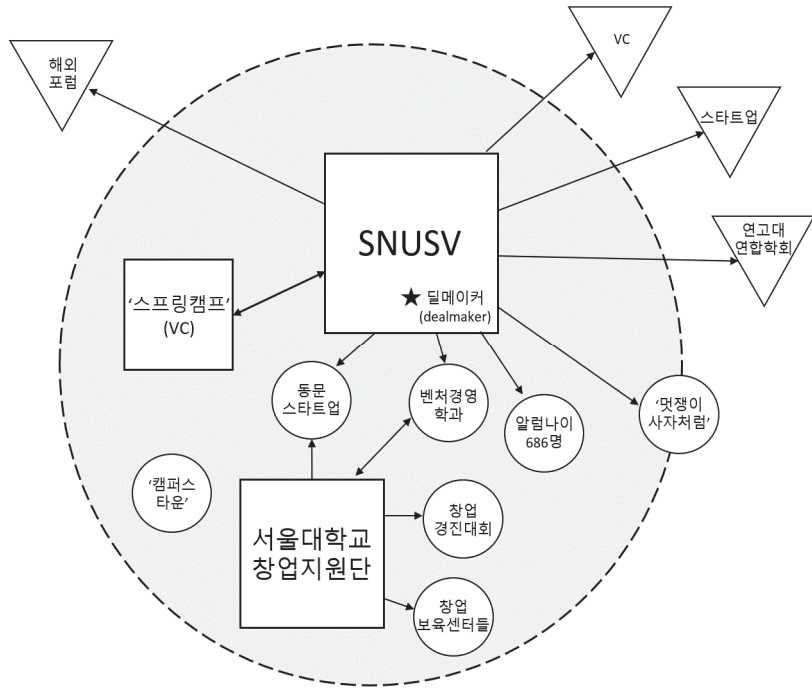


그림 2. 서울대 ‘캠퍼스 생태계’의 네트워크 구조

주) Spiegel and Harrison(2017:162)의 구조도에서 착안해 생태계 내 자원의 이동방향을 표현함.  
 ○는 생태계 구성요소, □는 앵커기관, ▽는 생태계 외부의 구성요소, ★은 딜메이커를 의미함

로운 시도들을 해왔다. 가령 2022년 6월에는 교내에서 자체적으로 스타트업 페스티벌을 개최한 바가 있다. 다만, 카이스트는 창업동아리에서 파생되는 네트워킹이 약하다. 2015년을 전후로 새로운 동아리들이 만들어졌으나 KE는 현재 활동을 하지 않고 있기에 대전 캠퍼스에 기반을 둔, 연합동아리가 아닌 창업동아리는 없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관해, 한 응답자는 “카이스트에는 창업 네트워크가 없어요. SNUSV는 현직도 있고, 전직도 있고, 연사 초청도 한다는 점에서, 그 네트워킹이 부러워요”라고 말했다. 카이스트는 학생 주도적 네트워킹이 약하기에 창업원과 학생창업지원 프로그램 E\*5를 통해 예비창업가를 핵심기관 및 사람과 연결해주고 있다. 이외에도, 카이스트 창업자는 창업 전 83.7%가 취업한 상태였으며(카이스트, 2015) 창업자 최종학력은 석·박사학위자가 80% 이상이었다(카이스트, 2016; 2017; 2018). 이에 관해 두

응답자는 각각 다음과 같이 답했다.

“카이스트 학부생들은 기본적으로 대학원에 진학한다는 생각이 있어요. 군대 문제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대학원 생각을 해요. 여기 분위기가 학구적인 것 같아요.” (카이스트 출신 스타트업 종사자, 2022년 7월 10일)

“저는 주변 동기나 후배들에게 무조건 인턴이나 일을 해본 후에 창업하라고 말해요. 아니면 경영 감각을 절대 익힐 수 없어요. (...) 저도 로봇 관련 전문가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한 후 모 유니콘 기업에서 인턴을 했고 로봇을 많이 만져볼 수 있었어요. (...) 인프라가 갖추어졌다는 생각이 든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창업을 했어요.” (카이스트 출신 창업가, 2022년 5월 1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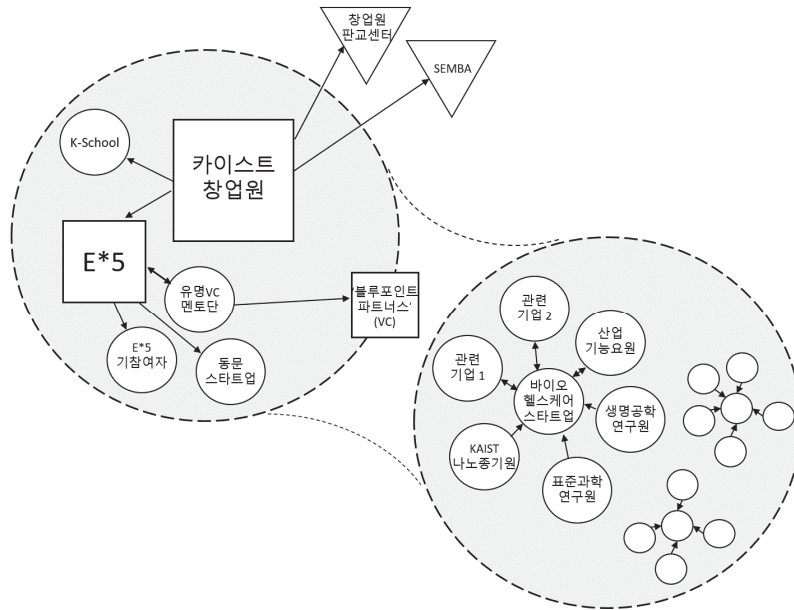


그림 3. 카이스트 ‘캠퍼스 생태계’ 및 ‘권역별·산업별 생태계’의 네트워크 구조

주) Spiegel and Harrison(2017:162)의 구조도에서 착안해 생태계 내 자원의 이동방향을 표현함.

○는 생태계 구성요소, □는 앵커기관, ▽는 생태계 외부의 구성요소, ★은 딜메이커를 의미함

즉, 이는 ‘캠퍼스 생태계’의 정체성보다 ‘권역별·산업별 생태계’의 정체성이 강할 것임을 시사하며 창업 환경이 비교적 안정적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네트워킹 역시 두 가지로 구분된다(그림 3 참조). 정리하자면, 두 생태계의 네트워킹 차이는 ‘캠퍼스 생태계’로의 정체성이 강한 서울대와 ‘캠퍼스 및 권역별·산업별 생태계’가 공존하는 카이스트의 차이로부터 기인하는 것이다.

셋째, 문화적 속성과 관련해 두 생태계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앞에서 서술한 것처럼 서울대는 ‘서울대생이 고시 공부는 안하고 창업을 하는 것’, ‘교수가 연구는 안하고 사업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다. 주로 공대 소속의 SNUSV 멤버와 소수의 개인이 강력한 신념을 갖고 창업을 시작하고 규제들을 바꾸어 나간 후에야 교내 창업지원센터가 생겨났다. 그러나 카이스트는 KB클럽이 설립되기 이전부터 대전시 차원에서 기술창업을 장려했다. 비록 “학교에 다니는 학

생이 창업하면 큰일난다”는 인식이 있어 학생들이 비밀스럽게 창업했지만(심재율, 2020: 119), 기업가정신을 지지해주는 지역적 문화가 미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1994년에 이미 카이스트에 정출연과 연계된 창업보육센터가 존재했던 것과 대덕연구개발특구가 1997년 경제위기 직후 스핀오프 창업을 통해 우리나라의 기술창업을 주도했던 것(길운규 외, 2018)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카이스트 내에서는 창업이 마이너리그로 여겨졌으나, 지역 내에서는 과학기술을 산업화시키고자 하는 분위기가 만연했다. 이러한 문화적 차이는 사회적 속성에도 일정 정도 영향을 주어 행위자 간 네트워킹의 중요도에도 차이를 가져왔다.

### 3) 기업가정신과 지역문화: 네트워킹의 차이

본 절에서는 서울대와 카이스트 생태계의 차이점 중 세 번째인 문화적 요소에 집중해 살펴보고자 한다.

창업생태계가 유지되고 성장하는 데에 필수적인 것은 소위 ‘스타트업 DNA’라고 부르는 창업의 핵심 가치들이 전수되는 것이다. 이 가치들은 이전 세대에서 이후 세대에게로 수직적으로 전수되고 동료에서 동료로 수평적으로 확산된다. 따라서 창업생태계의 유지 및 성장 과정은 본질적으로 문화적이며, 지역마다 차이를 보인다.

두 생태계는 모두 네트워킹을 중시하는 글로벌 스타트업 문화를 받아들이고 있으나, 개인이 네트워킹을 실천하는 양상에는 차이가 있었다. 서울대는 SNUSV라는 조직을 통해 선후배 간 활발한 네트워킹이 일어났으나 카이스트는 선후배 간의 네트워킹이 파편적이었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개인이 문화적 현상을 인식하는 렌즈로 활용하는 지역의 문화에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본 절에서는 세 가지의 원인을 정리해보았다.

첫째, 카이스트의 역사적으로 특수한 상황이 선후배 간의 네트워킹을 가로막는 경향이 있었다. 카이스트는 연구원으로 시작한 곳으로, 처음에는 학부가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서울대에서 학부를 졸업한 사람들이 대학원 과정으로 카이스트에 오는 경우가 많았다. 대표적인 사례로, NXC(넥슨의 지주회사) 김정주 사장, 빅스 공동 창업자인 송재경 대표와 NHN(현 네이버) 창업자 이해진은 모두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86학번 출신으로 카이스트 전산학 석사과정에 진학했으며 이들은 기숙사 룸메이트였기로 유명했다. 한 응답자는 이에 대해 “당시에는 타 대학 출신의 대학원생이 많았기에 선배들이 학부생들을 후배로 생각하지 않았고 그들 사이의 연결고리가 약했다”고 전했다. 즉, 동아리를 통한 선후배 간의 조직적인 네트워킹에 대해 낮은 중요도를 부여하는 로컬 문화가 존재했다고 해석 가능하다.

둘째, 카이스트 출신 기업가는 서울로 이전하고자 하는 욕구를 지니는 경우가 많아, 선후배 간 기업가정신의 전수가 일상적으로 발생하기 어렵다. 이는 기업가들이 대전보다 서울에서 기업가적 기회들(인재, 투자자, 네트워크 등)을 찾을 수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

이다. 특히 학생창업에서 특정 장소가 제공하는 이미지를 주요 입지 요인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있음이 인터뷰를 통해 드러났다. 입지 선정 요인이 무엇이었냐는 물음에 대해 두 응답자는 각각 다음과 같이 답했다. 따라서 대전보다 서울에서 기업가적 기회를 발견하기 용이하리라 생각하는 문화가 선후배 간의 기업가정신 전수를 불리하게 만들었다고 해석 가능하다.

“서울에서 인턴을 하며 팀원들을 모았기에 거기서 사무실을 구하는 것은 너무 당연했구요, (구체적으로는) 가공집[제조업체]이 많은 곳들인 성수, 종로, 을지로 세 군데를 고려했어요. 그중에서 가장 ‘힙’한 곳인 성수로 선택했죠.” (카이스트 출신 창업가, 2022년 5월 16일)

“블루포인트 서울 오피스에서 인턴을 하고, 대학 연합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네트워킹을 했어요. 휴학을 하고 서울에서 이것저것 하며 창업에 대한 꿈을 키웠어요.” (카이스트 출신 VC 종사자, 2022년 5월 15일)

셋째, 카이스트는 종합대학이 아닌, 과학인재 양성과 과학기술연구 수행을 위한 특수 대학이다. 따라서 서울대와 비교했을 때 생태계 구성원이 비교적 동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에 구성원들은 그곳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필요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구하기 어렵다고 인식했고, 결국 동아리와 같은 조직의 끈끈한 네트워크 형성을 어렵게 했다. 구성원의 다양성 문제에 관해, 한 응답자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SNUSV는 처음에 전기공학부에서 시작되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구성원이) 다양해지고 여하우도 많아졌는데 지금은 오히려 공대가 부족하죠. 현 회장만 봐도 미대 출신 여학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창업이라는 것이 한 섹터에만 갇혀있으면 분명 한계가 있어요. ‘문제’는 굉장히 잘 풀 것이나, 더 큰 문제를 가지고 푸는.. 그런 문제해결

력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계속 만나다 보면 종합이 되는 게 있어요.” (창업동아리 창립자, 2022년 5월 17일)

상술한 로컬 문화적 특성으로 인해 카이스트는 서울대에 비해 느슨한 결속력을 지닌 생태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인터뷰를 통해서도 뚜렷한 네트워크 문화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서울대 창업생태계는 네트워크가 체계적이고, 창업가들의 행실이나 인성을 규율하는 기능을 한다. 심지어는 네트워크 채널 사이에 중요도의 차이가 존재함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응답자는 서울대 창업생태계의 고밀도 네트워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여기 사람들은 네트워킹을 더 활발하게 하기 위해 ‘notion’ (플랫폼의) 자기소개 페이지를 제작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커피챗 문화는 30분 정도로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서슴없이 커피챗을 하자고 약속 잡을 수 있어요. 저는 커피챗에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기 위해 물어봐야 할 질문을 다섯 가지 정도 가지고 있어요. (...) 다들 자기 PR에 미쳐있는 사람들이라서 자리만 만들어 주면 본인 얘기를 마치 신앙고백 하듯이 해요. (...) 네트워크가 촘촘해서 이 사람의 인성이 문제가 있으면 일파만파로 소문이 퍼져나가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는 ‘착한 인성’을 기르게 하는 역할도 해요. 스타트업 씬에서는 아이템이나 능력보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훨씬 중요하니까 그런 거죠. (...) 네트워크 상의 위계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엔 ‘SNU 스타트업 모여라’ 오픈단톡방, SNUSV, 제가 ‘Slack’이라는 플랫폼에서 직접 만든 네트워크 그룹 순서로 중요하고, 이 순서대로 구성원을 까다롭게 받고 있어요. 예를 들어 Slack 채널은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무조건 기존 회원의 지인 추천을 통해서만, 그리고 저와의 커피챗을 한 후에만 들어올 수 있어요.” (서울대 출신 VC 종사자, 2022년 5월 20일)

## 6. 나가며: 기업가정신의 지리적 불균등성

본 연구는 서울대와 카이스트 창업생태계를 비교함으로써 기업가정신이 왜 지리적으로 불균등성을 보이는지 탐구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 창업생태계가 어떻게 발달해왔는지를 거시적으로 조명하고, 두 창업생태계는 어떻게 발달해왔고 어떤 구성요소들이 등장했는지를 살펴보고, 두 창업생태계의 물리적, 사회적, 문화적 속성을 비교한 후, 마지막으로 지역문화가 네트워크 문화에 끼친 영향에 초점을 두고 분석했다. 결론적으로 기업가정신은 지역문화에 영향을 받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울대와 카이스트 창업생태계는 한국 창업생태계가 태동할 때부터 한국을 대표하는 벤처요람으로 인식되어왔다. 혁신적인 것을 만들어낼 수 있으며 문제 해결력이 뛰어난 ‘사람’을 핵심 가치로 여기는 스타트업 문화에서 좋은 학벌을 지닌 것은 메리트로 작용했다. 좋은 학벌을 지녔다는 것은 그 사람 자체의 능력을 보장해주시기도 하나, 그 사람을 둘러싼 좋은 인프라를 암시해주기 때문이었다. 투자자를 비롯한 생태계 조성자의 입장에서도 학벌이 좋은 사람들에게 투자하는 것이 성공의 확률을 높이기 위해 두 생태계는 지난 30년 동안 역동적으로 성장해왔다.

한편, 두 생태계는 모두 사람을 중시하는 문화를 지니고 있으나, 로컬 문화의 차이로 인해 네트워킹 양상에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카이스트는 학부와 대학원 구성원들의 이질성으로 인해 선후배 간의 연계가 떨어지고, 대전의 기업가적 기회가 낮다는 인식으로 인해 서울로 이전하려 하고, 카이스트가 종합대학이 아닌 과학연구 중심 특수 대학이라는 점에서 끈끈한 네트워크가 형성되기 어려웠다. 이러한 로컬 문화는 기업가적 기회를 모색하는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기도 하나, 보다 중요하게는 그들의 인식에 영향을 끼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이 두 생태계



기업가정신의 색깔을 다르게 만든 원인이었다.

본 연구는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생태계의 다양한 구성원을 만나기 어려웠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1980~2020년대까지의 뉴스 자료를 광범위하게 찾아보았고, 직접 인터뷰를 하지 못하더라도 공개된 인터뷰 영상 자료를 참고했으며, 소수의 응답자와 지속적으로 만나 생태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했다.

연구를 마무리하며, 두 생태계가 한국 창업생태계의 역사적 전환점에서 어떻게 대응했고 진화해왔는지 살펴보는 것을 추후 연구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구성원들이 얼마나 연결되었는지, 얼마나 다양했는지, 딜 메이커가 존재했는지, 기업가가 해당 생태계에 들어감으로써 얻는 혜택이 강화되었는지 등을 시기별로 살펴본다면 창업생태계의 역동적 진화에 관한 의미있는 지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 사사

본 연구의 현장조사 과정에서 서울대학교 캠퍼스 타운사업단의 2022년도 1학기 지역연계수업 교과목(과목명: 도시경제지리학) 지원을 받은 것에 감사드립니다.

## 주

- 1) 한국 창업생태계 역사는 무엇에 중점을 두는가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다. 이민화 외(2015)은 벤처기업육성특별법이 제정된 1997년, IT버블이 터지고 벤처 건전화 정책을 시작한 2002년, 창조경제를 정책적으로 내세우기 시작한 2013년을 기점으로 하여 네 시기로 구분했다. 중소벤처기업부(2021: 19)는 사회적 관심을 기준으로 하여 2000년, 2007년, 2013년, 2019년을 변곡점으로 보았으며, 창업기업의 역할을 기준으로 하여 창업기업이 제조부품 공급사였던 제1기(1991~1997), 경제구조조정 및 벤처 혁신의 주체였던 제2기(1998~2008), 모바일 시대 새로운 서비스 제공

자였던 제3기(2009~2015),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이자 청년 일자리의 원천이었던 제4기(2016~2020)로 구분한 바 있다. 또한 이우진 외(2019)은 정부 주도의 선순환 창업생태계 구축이 시작된 2013년을 기점으로 하여 전후 시기 분석을 제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세부적인 연도에는 차이가 있더라도 크게 네 단계에 걸쳐 창업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정부의 태도, 창업 지원정책 등이 변화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2) 1982년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실리콘밸리를 보며 반도체 사업을 재개할 것을 결심하고, 1988년 이근희 회장이 ‘제2창업’을 선언함에 따라 한국의 경제를 이끌어 온 대기업들에 경영혁신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이에 힘입어 80년대 말 이후 전문기술과 지식을 갖춘 새로운 창업세대가 급증하였으나, 재원확보의 어려움을 겪어 창업 환경은 아직 열악한 상황이었다(매일경제, 1990.03.23.; 매일경제, 1991.03.19.; 매일경제, 1991.03.23.).

## 참고문헌

- 곽혜진·이무원, 2018, “한국과 중국 청두의 창업생태계 비교에 관한 연구: 질적 연구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3(5), pp.131-154.
- 구양미, 2022, “Entrepreneurial Ecosystems(기업가적 생태계) 개념과 시사점,” 한국경제지리학회지 25(1), pp.1-22.
- 길운규·안기돈·김서균, 2018, “대전 기술창업 생태계 연구,” 경영경제연구 40(1), pp.263-291.
- 김상태·홍운선, 2013, “한국과 미국의 기술이전 제도 비교 연구: KAIST와 캘리포니아대학교를 중심으로,” 기술혁신학회지 16(2), pp.444-475.
- 심재울, 2020, 이광형 카이스트의 시간: 천재 창업가들의 멘토에서 한국 미래학의 선구자가 되기까지, 파주: 김영사.
- 염대봉, 2021, “대학캠퍼스와 산학연협력단지의 지리·공간적 결합이 이용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양대 ERICA캠퍼스를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 35(4), pp.91-109.
- 이민화·최선, 2015, “1차 벤처붐의 성과에 대한 역사적 고찰과 평가,” 중소기업연구 37(4), pp.147-179.
- 이우진·오혜미, 2019, “2013-2016년 한국 벤처창업 정책의 특징에 관한 연구,” 한국창업학회지 14(1), pp.129-159.

- 정미애, 2019, “대학 캠퍼스 창업생태계의 최근 동향과 과제,” 국토 2019(10), pp.39-45.
- 중소기업연구원, 2020, 혁신창업거점 활성화를 위한 제도 연구, 정책연구 20-15.
- 중소벤처기업부, 2021, 한국 창업 생태계의 변화 분석.
- 카이스트, 2015, 2015 KAIST 창업기업 성과조사.
- 카이스트, 2016, 2016 KAIST 창업기업 성과조사.
- 카이스트, 2017, 2017 KAIST 창업기업 성과조사.
- 카이스트, 2018, 2018 KAIST 창업기업 성과조사.
- 홍성표·임한러, 2021, “서울시 세대별 창업 분포와 영향 요인에 대한 연구: 청년층과 중년층의 비교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6(3), pp.13-29.
- 황주성, 2004, “대덕 IT클러스터의 구조와 특성 분석,” 한국경제지리학회지 7(3), pp.359-384.
- Alvedalen, J. and Boschma, R., 2017, “A critical review of entrepreneurial ecosystems research: towards a future research agenda,” *European Planning Studies* 25(6), pp.887-903.
- Aoyama, Y., 2009, “Entrepreneurship and regional culture: the case of Hamamatsu and Kyoto, Japan,” *Regional Studies* 43(3), pp.495-512.
- Brown, R. and Mason, C., 2017, “Looking inside the spiky bits: a critical review and conceptualisation of entrepreneurial ecosystems,” *Small Business Economics* 49(1), pp.11-30.
- Cantner, U., Cunningham, A. J., Lehmann, E. E. and Menter, M., 2021, “Entrepreneurial ecosystems: a dynamic lifecycle model,” *Small Business Economics* 57(1), pp.407-423.
- Feld, B., 2012, *Startup Communities: Building an Entrepreneurial Ecosystem in Your City*. New York: Wiley.
- Hayton, J. and Cacciotti, G., 2013, “Is there an entrepreneurial culture? A review of empirical research,” *Entrepreneurship and Regional Development* 25(9-10), pp.708-731.
- Isenberg, D. J., 2010, “How to Start an Entrepreneurial Revolution,” *Harvard Business Review* 88(6), pp.41-50.
- Kibler, E., Kautonen, T. and Fink, M., 2014, “Regional social legitimacy of entrepreneurship: implications for entrepreneurial intention and start-up behaviour,” *Regional Studies* 48(6), pp.995-1015.
- Mack, E. and Mayer, H., 2016, “The evolutionary dynamics of entrepreneurial ecosystems,” *Urban Studies* 53(10), pp.2118-2133.
- Mack, E. and Qian, H., 2016, *Geographies of entrepreneurship*, Routledge Studies in Human Geography.
- Qian, H., Acs, Z. and Stough, R., 2013, “Regional systems of entrepreneurship: the nexus of human capital, knowledge and new firm formation,” *Journal of Economic Geography* 13(14), pp.559-587.
- Roundy, P. T., 2016, “Start-up community narratives: the discursive construction of entrepreneurial ecosystems,” *The Journal of Entrepreneurship* 25(2), pp.232-248.
- Shane, S. and Venkataraman, S., 2000, “The promise of entrepreneurship as a field of research,”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5(1), pp.217-226.
- Sorenson, O., 2017, “Regional ecologies of entrepreneurship,” *Journal of Economic Geography* 17(5), pp.959-974.
- Spigel, B. and Harrison, R., 2018, “Toward a process theory of entrepreneurial ecosystems,” *Strategic Entrepreneurship Journal* 12(1), pp.151-168.
- Spigel, B., 2017a, “Bourdieu, culture, and the economic geography of practice: entrepreneurial mentorship in Ottawa and Waterloo, Canada,” *Journal of Economic Geography* 17(2), pp.287-310.
- Spigel, B., 2017b, “The Relational Organization of Entrepreneurial Ecosystem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41(1), pp.49-72.
- Stam, E. and Spigel, B., 2017, “Entrepreneurial ecosystems,” in Blackburn, R., De Clercq, D. and Heinonen, J. (eds.), *The SAGE Handbook of Small Business and Entrepreneurship*, SAGE.
- Stangler, D. and Bell-Masterson, J., 2015, *Measuring an entrepreneurial ecosystem*, Kauffman Foundation.
- Sternberg, R., 2021, “Entrepreneurship and geography—some thoughts about a complex relationship,” *The Annals of Regional Science*, pp.1-26.
- Stuetzer, M., Obschonka, M., Brixy, U., Sternberg, R. and Cantner, U., 2014, “Regional characteristics, opportunity perception and entrepreneurial activities,” *Small Business Economics* 42(2), pp.221-244.

World Economic Forum, 2013, *Entrepreneurial Ecosystems Around the Globe and Company Growth Dynamics*, Davos: World Economic Forum.

[언론자료]

대학신문, 2005, “③ 대학 실험실 벤처, 변해야 산다,” 10월 8일자.

동아일보, 1991, “創業학교 不況에 門닫는 곳 많다,” 12월 19일자.

머니투데이, 2015, “스타트업 토양 된 창업 네트워크 중심,” 5월 20일자.

머니투데이, 2021, “미래 유니콘 80% 수도권 쏠림... 이대로면 지방 창업생태계 붕괴,” 6월 28일자.

매거진한경, 2017, “취업 대신 ‘창업의 꿈’을 키우는 서울대 천재들,” 6월 20일자.

매일경제, 1990, “商品을 팔지말고 이미지를 팔아라, 財界, 다양한 變身의 물결,” 3월 23일자.

매일경제, 1991a, “달라지는 韓国人③ "脫 쉐러리맨" 20-30代 社長 급증,” 3월 19일자.

매일경제, 1991b, “전문기술 起業 세계시장 도전,” 3월 23일자.

매일경제, 1998, “인터뷰 SNU프리지전 창업 박희재 서울대 교수 연구성과 보상...학생들 열의 높아,” 9월 8일자.

서울대저널, 2008, “꿈을 향한 도전, ‘벤처’는 계속된다. 서울대 벤처 바람과 창업지원센터 설립, 그 10년 후.”

연합뉴스, 1999a, “<대덕사이언스>과기원, 기술경쟁력

평가센터 설립,” 7월 29일자.

연합뉴스, 1999b, “<대덕사이언스>KAIST. 출연연 ‘벤처 기업 공동지원,’” 12월 23일자.

연합뉴스, 2000, “대덕밸리 벤처기업, 서울 이전 여전,” 9월 17일자.

조선일보, 1997, “대학생 벤처창업회 결성,” 5월 20일자.

조선일보, 2022, ““서울대 나온 대표님 찾습니다” 리스크 커진 VC의 ‘안전 투자법,’” 5월 24일자.

한국경제, 2000, “[역동 21세기 팔도경제기행] 서울 관악구일대,” 3월 31일자.

헬로디디, 2016, “‘기술보국’ 박희재의 승부수...”R&D, 기업 마지막 등불,” 8월 11일자.

헬로디디, 2021, “KAIST 창업 열풍 ‘시작점’...블루포인트 네트워킹 ‘열기,’” 6월 10일자.

교신: 구양미, 08826,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전화: 02-880-9025, 이메일: yangmi@snu.ac.kr

Correspondence: Yangmi Koo, 08826, Department of Geography, College of Social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1 Gwanak-ro, Gwanak-gu, Seoul 08826, Korea, Tel: +82-2-880-9025, E-mail: yangmi@snu.ac.kr

최초투고일 2022년 08월 18일  
수정일 2022년 09월 14일  
최종접수일 2022년 09월 22일